

# 어머니와 함께 민속촌 찾아 '전통문화 체험'

## ■ 하인스 워드 방한 7일째

하인스 워드(30)가 9일 어머니 김영희(59)씨와 함께 경기도 용인 한국민속촌을 찾았다. 워드는 이날 오전 10시에 편한 복장으로 민속촌에 도착한 뒤 매표소 부근 사무실에서 화사한 연분홍빛 한복 저고리를 갈아입고 관광을 시작했다.

워드는 방명록에 "한국풍을 더 많이 배울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을 사랑합니다.(Thanks for helping me learn more about the Korean customs. I ♡ Korea)"라고 썼다.

이 워드는 어머니와 함께 다정한 모습으로 민속촌 곳곳을 거닐며 살림집, 동헌(東軒), 대장간 등을 호기심 어린 눈길로 관람했으며 직접 떡메 치기를 해보고 즐겨워 하기도 했다.

워드는 또 동헌 마루에 잔치상을 차려놓고 민수무강을 빌며 어머니에게 큰절을 올려 주위의 박수를 받았다. 김영희씨도 아들에게 한국의 전통문화를 보여주는 것이 즐거운 듯 내내 환한 웃음을 지어 눈길을 끌었다.

황사가 걸린 화창한 날씨 속에 민속촌을 찾은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워드와 김영희씨 주변에 몰려들어 '하인스 워드'를 외치거나 반갑게 손을 흔들었고 워드도 특유의 '살인미소'로 화답했다.

워드는 기자들에게 "내가 옛날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아마 튼튼한 농부가 돼 벼농사를 지었을 것"이라고 농담을 건넨 뒤 오후 2시께 차에 올라 손을 흔들며 민속촌을 떠났다.

이 워드는 어머니와 함께 다정한 모습으로 민속촌 곳곳을 거닐며 살림집, 동헌(東軒), 대장간 등을 호기심 어린 눈길로 관람했으며 직접 떡메 치기를 해보고 즐겨워 하기도 했다.

워드는 또 동헌 마루에 잔치상을 차려놓고 민수무강을 빌며 어머니에게 큰절을 올려 주위의 박수를 받았다. 김영희씨도 아들에게 한국의 전통문화를 보여주는 것이 즐거운 듯 내내 환한 웃음을 지어 눈길을 끌었다.

황사가 걸린 화창한 날씨 속에 민속촌을 찾은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워드와 김영희씨 주변에 몰려들어 '하인스 워드'를 외치거나 반갑게 손을 흔들었고 워드도 특유의 '살인미소'로 화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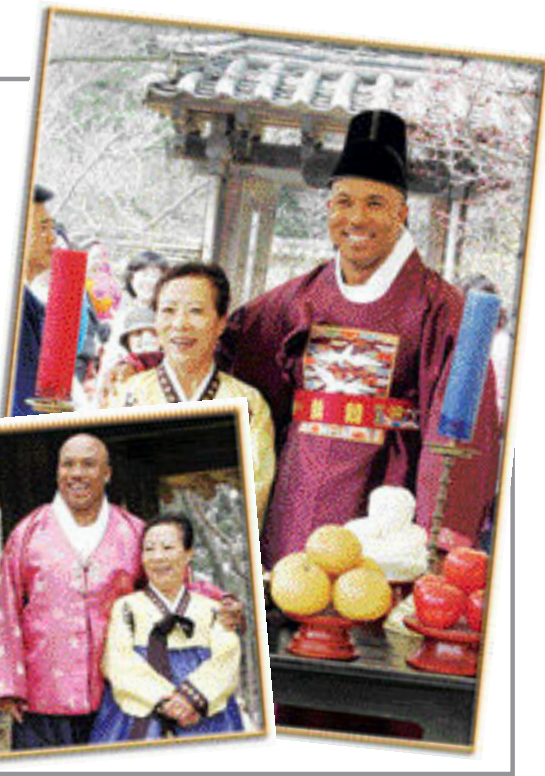
워드는 기자들에게 "내가 옛날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아마 튼튼한 농부가 돼 벼농사를 지었을 것"이라고 농담을 건넨 뒤 오후 2시께 차에 올라 손을 흔들며 민속촌을 떠났다.

이 워드는 어머니와 함께 다정한 모습으로 민속촌 곳곳을 거닐며 살림집, 동헌(東軒), 대장간 등을 호기심 어린 눈길로 관람했으며 직접 떡메 치기를 해보고 즐겨워 하기도 했다.

워드는 또 동헌 마루에 잔치상을 차려놓고 민수무강을 빌며 어머니에게 큰절을 올려 주위의 박수를 받았다. 김영희씨도 아들에게 한국의 전통문화를 보여주는 것이 즐거운 듯 내내 환한 웃음을 지어 눈길을 끌었다.

황사가 걸린 화창한 날씨 속에 민속촌을 찾은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워드와 김영희씨 주변에 몰려들어 '하인스 워드'를 외치거나 반갑게 손을 흔들었고 워드도 특유의 '살인미소'로 화답했다.

워드는 기자들에게 "내가 옛날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아마 튼튼한 농부가 돼 벼농사를 지었을 것"이라고 농담을 건넨 뒤 오후 2시께 차에 올라 손을 흔들며 민속촌을 떠났다.



## 정준호, 절단장애인협회에 2천만원 기탁

영화배우 정준호가 7일 저소득 절단장애인의 보장구 지원에 써달라며 서울 절단장애인협회에 2천만원을 기탁했다.

정준호는 지난 7일 '사랑의 밤차' 본부인 서울 이태원의 한 식당에서 열린 전달식에서 2천만원을 기탁하고 이날 참석한 장애인 어린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장애인구 무의탁 노인 등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 식사를 대접하는 '사랑의 밤차' 회장인 그는 "팔과 다리가 불편한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 이들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달래주고 싶은 마음에 적은 금액이지만 정성을 보냈다"고 밝혔다.



## 록그룹 롤링스톤스, 중국 대륙 강타

영국 출신의 세계적 록그룹 롤링스톤스가 중국 대륙을 강타했다.

롤링스톤스는 지난 8일 밤 상하이대무대(上海大舞台)를 가득 메운 8천여명의 청중들 앞에서 2시간에 걸쳐 과거의 히트곡들을 열광적으로 불렀다.

롤링스톤스는 중국은 두차례나 무산된 뒤 세번째에 성사됐다. 지난 2003년 두차례나 상하이 공연을 계획했다가 당시 아시아를 휩쓸었던 중증호흡기증후군(SARS) 때문에 미룰 수밖에 없었다. 이날 공연은 특히 중국 최고 로커로 인기를 끌고 있는 조진석 추이젠(최건)이 합세해 의미를 더했다.



## “역사왜곡도 넘어선 일본인 반성해야”

### 왕인축제 찾은 국제교류 '목련의 집' 이사장 야키가야 다에코 이사장 성명

독도 영유권 주장에 이어 교과서 영토 표기 등 일본의 역사 왜곡이 도를 넘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 일본인의 역사 반성과 가까운 나라 실현을 호소하는 성명이 화제다.

주인공은 '2006 영암왕인문화축제' 방문단으로 영암 찾은 국제 교류와 복지의 집 '목련의 집' 이사장 야키가야 다에코(八木ヶ谷 妙子·92)씨. 야키가야 다에코 이사장은 지난 7일 오후 영

암 월출산온천관광호텔에서 영암군이 주최한 일본인 방문단 초청 만찬에서 "가깝고도 가까운 나라, 한국을 위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9일 이 자리에 참석한 군 관계자가 밝혔다.

그는 성명을 통해 "학교 다닐 때 '백제의 왕인 박사'가 처음으로 미개의 나라인 일본에 문자를 전했다"라고 배웠다"면서 "가깝고도 가까운 나라 한국을 위해 힘써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워드는 어머니와 함께 다정한 모습으로 민속촌 곳곳을 거닐며 살림집, 동헌(東軒), 대장간 등을 호기심 어린 눈길로 관람했으며 직접 떡메 치기를 해보고 즐겨워 하기도 했다.

워드는 또 동헌 마루에 잔치상을 차려놓고 민수무강을 빌며 어머니에게 큰절을 올려 주위의 박수를 받았다. 김영희씨도 아들에게 한국의 전통문화를 보여주는 것이 즐거운 듯 내내 환한 웃음을 지어 눈길을 끌었다.

황사가 걸린 화창한 날씨 속에 민속촌을 찾은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워드와 김영희씨 주변에 몰려들어 '하인스 워드'를 외치거나 반갑게 손을 흔들었고 워드도 특유의 '살인미소'로 화답했다.

워드는 기자들에게 "내가 옛날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아마 튼튼한 농부가 돼 벼농사를 지었을 것"이라고 농담을 건넨 뒤 오후 2시께 차에 올라 손을 흔들며 민속촌을 떠났다.



'2006 영암왕인문화축제' 방문단으로 영암을 찾은 국제 교류와 복지의 집 '목련의 집' 이사장 야키가야 다에코(八木ヶ谷 妙子·92·왼쪽)씨가 가까운 나라 실현을 위한 성명서를 서북남 영암군 부군수에게 전달하고 있다.

## 쇼트트랙 3관왕 안현수에 기아차, 뉴 스폰서 지원



기아차는 9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토리노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3관왕 등을 차지한 안현수 선수에게 뉴스폰서를 제공하는 지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 조대 평생교육원 산악회 봄철 산불예방 홍보활동



조산대 평생교육원 산악회(회장 서생현) 회원 80명은 지난 8일 오전 무등산 중심사 주변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봄철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벌였다.

## 내 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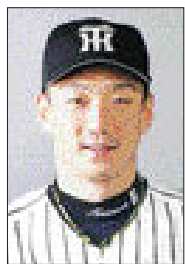
▲서법석씨(열린우리당 전남도지사 예비후보)

## 한국계 강타자 가네모토 도모아키 日 프로야구 연속 풀이닝 출장 세계 타이

일본 센트럴리그 한신 타이거스의 한국계 강타자 가네모토 도모아키(金本知憲·38) 선수가 연속 풀이닝 출장 세계 타이 기록을 세웠다고 일본 언론이 9일 보도했다.

가네모토는 8일 오사카돔에서 열린 요코하마 베이스타스와의 경기에서 4번 좌익수로 출전, 지난 1999년 7월21일부터 계속된 연속 풀이닝 출장 기록을 903 시합으로 늘렸다.

이는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뛰었던 칼 립켄 주니어가 지난 1982-1987년에 세운 기록과 동률이다.



가네모토는 1991년 히로시마에 입단해 지난 2000년에는 30홈런 30도루 타율 3할인 '트리플 쓰리'를 달성하는 기록을 세웠다. 지난 40홈런, 125타점, 120득점을 올렸다.

가네모토는 부모가 한국인인 한국계 3세로 지난 2001년 일본 여성과 결혼하면서 일본 국적을 취득했다.

## 왕년의 '축구스타' 이태호씨 평택에 어린이 축구교실 열려



1980년대 축구 국가대표팀 부동의 골잡이 이태호(45)씨가 경기도 평택에 어린이 축구교실을 열었다.

이씨는 80년대 중반 최순호, 허정무, 변병주, 조광래 등과 함께 한국을 32년만에 월드컵 본선에 진출시킨 스타플레이어 출신.

그는 이달 4일부터 11월까지 평택시생활체육협의회와 평택시교육청 주최로 매주 화, 목요일 평택 종합운동장에서 6-13세 유소년 40여명을 대상으로 '이태호 어린이 축구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999-2002년까지 3년간 프

로팀 대전시티즌의 수석코치와 감독을 역임한 그는 2003년 12월부터 평택 신학교등학교 축구부 감독을 맡아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그는 "어린이 축구교실은 취미로 참가한 아이들이 많이 놀이 위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며 "재능있는 아이가 눈에 띄면 축구 입문을 권유해 우수선수 키울 생각"이라고 말했다.

축구 꿈나무를 조기 발굴해 앞으로 축구 불모지인 평택에 '축구 도시'로 조성하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다.

## 가수 이미지씨 딸 정재은 가요계 컴백

이미지의 딸인 가수 정재은(42)이 설운도가 작곡한 노래로 컴백한다. 정재은은 오는 18일 한국과 일본에서 두 나라 언어 버전으로 백시 싱글을 동시에 발매한다. 타이틀곡은 설운도 작곡·함경문 작사의 발라드곡인 '이젠 내가다'.

1972년 8세에 가수로 데뷔, 80년대 '항구'라는 노래로 이름을 알린 정재은은 99년 일본에서 '황혼의 도쿄'를 발표하며 엔카 가수로 데뷔했다. 그러나 2003년부터 2년간 투병 생활을 했고 지난해 신보 '다시 한번 순수한 사랑'을 한국과 일본에서 발표하며 활동을 재개했다.



## 도로공사 호남본부 '무등산 사랑'



한국도로공사 호남본부(본부장 신관순) 직원 50여명은 8일 사회공익사업의 하나로 무등산 중심사 입구에서 서석대까지 '무등산 사랑' 자정화활동 및 산불예방 캠페인'을 벌였다. 호남본부 산악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서 직원들은 등산객들에게 산불예방 리본을 달아줬으며, 다음달에는 영산강 환경정비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People@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34 FAX (062) 222-4938, 222-4918

### 화 속

- ▲고 오승훈(화백)씨 차남 병재군 백운수씨 장녀 연아양=16일(일) 오후 1시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 그랜드볼룸
- ▲강영순씨 장남 장한실군 이한일(광주중소기업지원센터 부부장)씨 차녀 연경양=16일(일) 오후 1시50분 광주상록예식장 3층 장미홀.
- ▲이동성(영광군 기획감사실장)씨 장남 태현군 박영규(북광주세무서 세원관리과장)씨 장녀 현미양=16일(일) 오후 1시40분 상무리초컨벤션웨딩홀 2층 테이저홀.
- ▲이은재씨 장남 종연군 이동진씨 장녀 주연양=29일(일) 오후 3시 부산 동래구 온천동 호텔 농심 크리스탈홀(희림성 2층).

### 동창·동문회

- ▲복성중 제 9회 동창회(회장 최광남) 월례회=10일(월) 오후 6시30분 해태식당 525-7393
- ▲복성중 제 8회 동창회(회장 박수광) 월례회=11일(화) 오후 6시30분 꽃마을식당 223-0750
- ▲복성중 제 11회 동창회(회장 최홍주) 월례회=11일(화) 오후 7시 고려 영광골프장 222-5354
- ▲복성중 제 12회 동창회(회장 서운호) 월례회=12일(수) 오후 6시30분 일억초 223-7898
- ▲복성중 제 13회 동창회(회장 박중우) 월례회=13일(목) 오후 6시30분 일억초 223-7898

### 중친회

- ▲전주리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

- 이화회(회장 리수복) 4월 월례회=11일(화) 오후 6시 전주리씨 광주전남도지원 회의실 225-5631
- ▲의성김씨 광주·전남 중친회(회장 김중현) 정기총회=15일(토) 오전 11시 마이웨딩타운(구 영산강예식장) 3층. 011-9771-4705

### 향우회

- ▲재광 강진군 향우회(회장 김영현) 월례회=10일(월) 오후 6시30분 북구 유동 아립회관 523-5885

### 알림

- ▲제12회 전국 초등학교 대성 금연 글짓기 공모=초등학교 2~6학년 대상으로 '휴먼'을 주제로 원고지 7매 내외로 작성. 4월 28일까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학동 14번지 소년한국일보 사법부' 문의 02-7244-2408

- ▲광주생명의 전화(대표 소진택) 상담=24시간 전화 상담(1588-9191) 월~금 오전10시~오후4시
- ▲의성김씨 광주·전남 중친회(회장 김중현) 정기총회=15일(토) 오전 11시 마이웨딩타운(구 영산강예식장) 3층. 011-9771-4705
- ▲변호사 공재원 법률사무소 토요 무료법률상담=매주 토요일 오전9시~오후1시 사무실 223-2100
- ▲비밀기기정복력상담소 무료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등 각종 상담. 직접 상담은 전화나 메일로 사전예약 매주 목·금요일. 652-1366, nam939@dreamwiz.com

### 모 집

- ▲전남체신청 장애인방문 정보화 교육 신규강사 모집=광주·전남지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으로 IT 활용능력 보유하고 있는 고졸 이상 학력자. 신청서 접수기간은 4월 16일

- 까지 체신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문의 600-4814
- ▲광주 남구시니어클럽 사회적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청구 및 봉제용품 재봉 경력자로 55세 이상. 351-5070.682-0752
- ▲청수 조기 축구회 회원모집=45~55세 매주 수·금·토·일 오전7시부터 수창초 운동장 017-612-7695
- ▲달리다공선교단 단원모집=드럼·기타·베이스·키보드 배워 봉사하실분, 교회·병원·군부대·교도사·고아원 위문공연=941-8591, 011-648-0806
- ▲담당장에서사랑사회(회장 서원호) 봉사회원 모집=중증장애인에 대해 봉사할 차량·후원·발벗 봉사회원 각 50명씩, 문의 (061)381-8909, 011-9600-8909, 011-9600-8102
- ▲장애인 차량봉사=장애인 차량봉사 동행 서비스, 장거리 광주일원(담양·나주·화순) 등 2~3일전 예약 가능. 0505-206-0106
- ▲Philo통기타 동호회=40세 이상 남녀. 매월 1회 정기발표회, 초보

- 자도 가능 019-660-3388
- ▲푸른학당=오전반(경정고시반·초등과정), 오후반(초등반·기초영어반), 야간반(초등반·중등반·고등반) 광주교대 맞은편 2층 529-1188
- ▲부음
- ▲윤지원(미국 시카고의대 교수)씨 별세 판(광주시 교통정책 연구실장)씨 부친상=발인 11일(수) 요한 병원 2분향소. 613-4491
- ▲임삼례씨 별세 김승남·기호씨 모친상 김세용·이연산씨 빙모상=발인 11일(화) 오전 9시 무등장례식장 101호. 515-4488
- ▲김중수씨 별세 일호·지호·현

- 호·현수씨 부친상 이병채씨 빙부상=발인 11일(화) 그린장례식장 10분향소. 250-4410
- ▲최현당씨 별세 양규·증환·주환씨 부친상=발인 10일(월) 오전 9시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3분향실 231-8903
- ▲정순덕씨 별세 유재성·시중·창중·명중·기중씨 모친상 김석홍씨 빙모상=발인 11일(화) 오전 9시30분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1분향실 231-8901
- ▲이선례씨 별세 양성현·상만·상락·상대씨 모친상 김경락·강형원·조규용씨 빙모상=발인 11일(화) 오전 8시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2분향실 231-8902

광주에서 30분 아름다운 청계공원  
기적같은특별분양  
☎(062)521-1100

2000명의 주차장 무료이용  
무등장례식장  
■북구 우산동 안보회관(구 호진)  
대표: (062)515-4488